여름방학 중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강제 참여 '금지'

도교육청, 학생들 선택 · 자율 참여 원칙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강제 참여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등에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현장점검(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도 감독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손 씻기 체험 행사 원광대학교병원은 익산시보건소와 공동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 행사를 19일 진행했다. 사진은 원광대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내원객들이 손 씻기 체험에 나서는 모습

'소중한 자연사 표본, 기증 받습니다'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소장 경위 · 출처 분명한 자연사 관련 표본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김환규)이 전시와 교육을 통한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자연사 관련 표본을 상시 기증받는다.

기증 대상은 소장 경위나 출처가 분명한 조류와 포유류 및 어류 박제, 식물, 곤충, 광물, 암석, 화석 등 자연사 관련 표본이다.

전북대는 개교 70주년에 맞춰 오는 10월 호남권 최초 대학 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에 소중한 자연사 관련 표본들을 기증받아 전시나 교육을 통해 자연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대는 박물관 로비에 기증자의 명패를 설치하고, 기증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환규 자연사박물관장은 "숨겨진 자연의 보물들이 세상에 나와 더 많은 이들과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여름철 감염병 발생 '주의'

전북도교육청은 올 여름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매년 하절기에 증가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각결막염, 수족구병 등 학생빈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 등으로 각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개학 이후 물놀이 등에 유인한 유행성눈병 급증이 우려되어 '하절기 학교감염병 예방 대책'을 안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방학 전에는 개인위생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을 전달해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각급 학교는 학생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서면, 유선을 통해 즉각 상급기관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내년 대입 수시모집 74% '역대 최고치'

201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19일 발표했다.

2018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 인원은 35만20명으로 2017학년도(34만9776명)보다 244명 감소했다.

반면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도 24만6891명에서 25만8920명으로 1만2029명 가량 증가했다.

이에따라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인원 비율은 2017학년도(70.5%)에서 74%로 3.5%포인트 높아졌다.

수시 모집 인원의 86.4%(22만 3712명)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으로 선발된다. 이는 전년(21만1762명)보다 0.6%포인트 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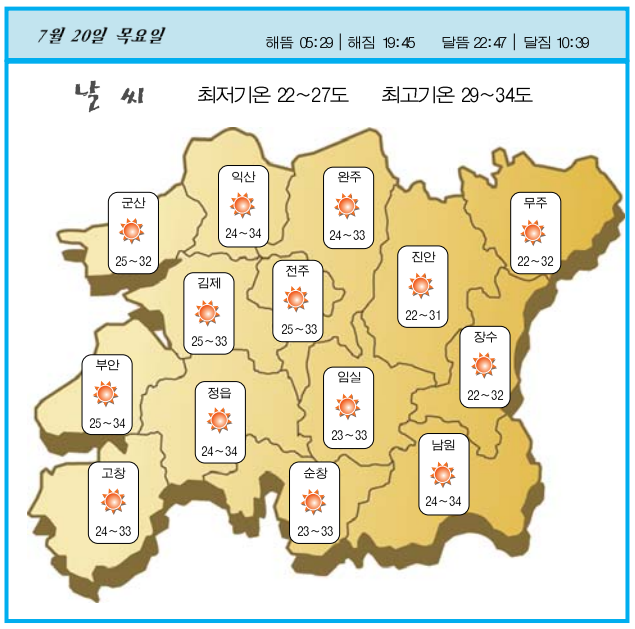
논술전형 모집 인원은 1만2961명으로 2017학년도(1만4689명)보다 1728명 감소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11~15일이며 이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

합격자는 12월15일까지 발표되고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18일부터 21일까지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6회로 제한(경찰대·광주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제외)되고 복수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 1개 대학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건축민원 행정 효율성 향상

덕진구, 전주시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

전주시 덕진구는 건축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주시건축사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사협회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사회는 민원의 보완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보완지시를 통해 준공을 앞둔 건축주의 이자부담과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 및 영업개시 지연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행정 처리방식의 개선과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덕진구는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간 원활한 업무 협조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 시 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도면의 일치를 확인하고 허가서류 접수 전 민원인에게 원인자부담금액에 대해 사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덕진구 신명춘 건축과장은 "이렇게 민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도시재생 · 시설물관리 등 시정업무 드론영상 활용

전주시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도시재생과 시설물관리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키로 했다.

앞서, 시는 세계 최초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 드론산업과 첨단 탄소소재, ICT산업을 융복합해 드론축구를 개발.보급하고 첫 공식대회를 개최해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 힘써왔다.

시는 드론을 이용한 시정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갈수록 늘어날 드론영상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하기 드론주행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간정보팀 직원들이 직접 드론영상을 촬영해 DB로 구축하고 있다.

시는 향후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지역 주요 관광지와 생태하천, 도로 등에 대한 항공영상을 촬영해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시정 전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와 지형변화 등 실시간 정보습득 및 DB 축적으로 상황 분석 및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드론비행을 위한 드론길 지도를 제작하고 정보.기술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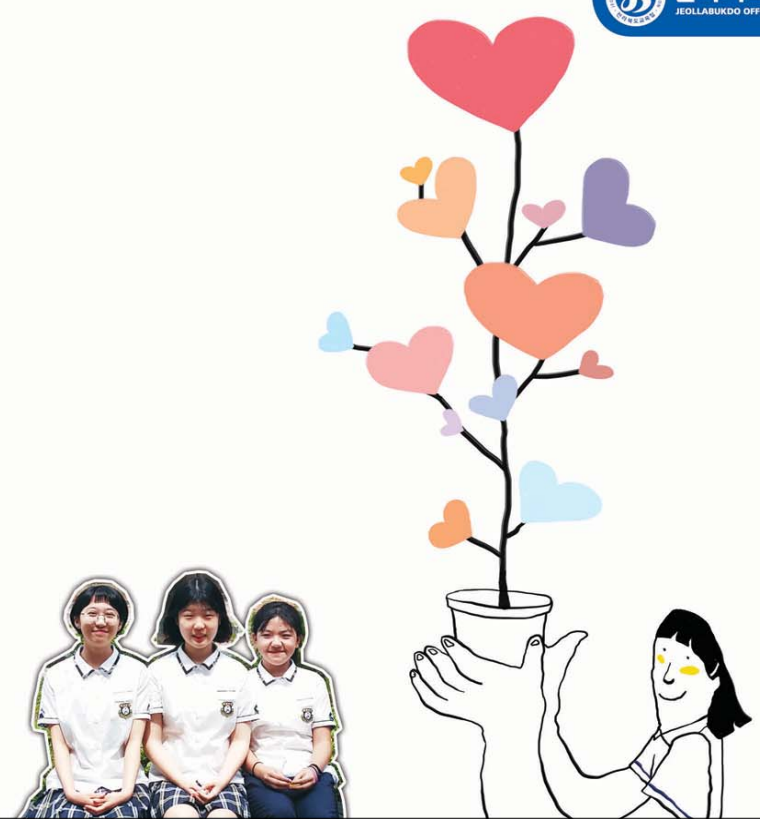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